

임상실습에 대한 방사선 전공 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Students in the Radiation Study on the Clinical Practices -

인하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한서대학교 방사선학과¹⁾

이병렬·김현길·윤명관·이기중·차상영·임청환¹⁾

— 국문초록 —

임상실습은 전공분야에 관한 실제적 경험을 의료기관에서 현장 실습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이에 임상실습이 진행되는 가운데 임상 지도강사와 학생의 임상실습에 관한 인식을 비교·연구하고자 한다.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방사선을 전공하는 재학생 중에 2013년 임상실습을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고안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진행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275부를 통계프로그램 SPSS (12.0 version)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카이제곱 검정, McNemar검정을 실시하였다.

방사선 전공을 선택한 동기는 높은 취업률 때문(44.0%)이고,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53.1%)이라고 대답하였다. 8주의 임상실습 기간에 대해 51.3%가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임상실습 시기는 3년 과정의 학생은 2학년 겨울방학(47.3%), 4년 과정의 학생은 3학년 1학기(27.7%)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동안 학생들은 전문지식의 부족(32.4%)을 느꼈으며, 실습교육의 일부 내용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차이가 있다(68.4%)고 대답하였다. 임상실습교육에 대해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임상실습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은 3.94 ± 0.89 로 나타났다. 실습의 실시 전과 후에 방사선사 취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84.1%에서 82.9%로 나타났다. 방사선사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직업의 안정성으로 실습 전 49.0%와 실습 후 46.0%, 취업을 원하지 않은 이유는 적성 및 소질에 맞지 않아서가 실습 전 37.0%와 실습 후 40.7%로 대답하였다.

취업을 위한 대학교육이 아닌 유능한 인재를 통한 방사선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내실 있고 만족도 높은 대학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교육대상자인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임상실습시기와 기간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중심 단어: 임상실습, 방사선 전공, 인식

I. 서 론

대한민국 최초의 방사선 교육기관으로는 1963년 3월에

* 접수일(2014년 8월 17일), 1차 심사일(2014년 8월 12일), 확정일(2014년 9월 15일)

교신저자: 임청환, (356-706)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46
한서대학교 방사선학과
Tel : 041-660-1056,
E-mail : LCH116@hanseo.ac.kr

수도의과대학 병설 의학기술초급대학으로 출범하였고¹⁾, 1991년에 3년 과정으로 개편되었으며, 이론적 지식과 이해를 실제 임상에서 경험을 통해 적용하기 위한 과정으로 1993년부터 임상실습이 정규 과목으로 편성되어 실질적인 지식을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²⁾. 2000년부터 4년 교육과정의 방사선학과가 개설되었고, 현재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4년 과정의 방사선학과가 개설되면서 깊이 있는 임상실습을 목적으로 추가적인 전문화 또는 심화실습이 선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상실습의 개념은 학교와 임상지도자 간의 공동 계획 및 지도하에서 학생들이 일반 및 전문분야에 관한 실제적 경험을 얻도록 학교 이외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정의되고 있다³⁾. 실제 학생들은 임상실습 동안에 이론적 지식에 그친 배움을 임상에서 시행되는 검사를 직접 목격, 경험함으로써 확실한 학습 효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 환자 케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법 등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없는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또한 임상실습을 통해 전공취업 및 취업분야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실습교육을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⁴⁾.

의료기관에서는 방사선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검사를 할 수 있는 특수성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검사에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어 임상실습이 실습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치우쳐서 대학 교육을 반복해서 학습하게 되는 경우가 되고 있다. 또한 자칫하면 대학에서 받는 교육과 병원에서 받는 교육의 이론적 차이를 초래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⁵⁾.

임상실습에 대한 연구는 실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같은 보건계열의 작업치료학에서는 이향숙 등⁴⁾은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통해 전공취업에 대한 인식과 희망분야에 대한 인식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진경 등⁶⁾은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는 연구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방사선(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습에 대한 연구는 임상실습만족도에 관한 연구⁷⁾, 임상실습에서 경험한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⁸⁾들이 있으나 기타 실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의 연구보고보다 다양하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에 있어서 실습교육의 수요자 입장에서의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관한 인식, 그리고 임상실습 전과 임상실습 후에 방사선사의 취업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임상실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II.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3년 과정 대학교의 방사선과 재학생 중에 2013년 임상실습을 마친 학생 209명과 수도권 소재 4년 과정 대학교의 방사선학과 재학생 중에 임상실습을 마친 학생 9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 방법

1) 조사 기간 및 절차

본 연구의 설문 자료 수집은 2013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개월간 진행하였다. 각 대학교에 유선을 통해서 설문에 대한 내용과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에 대한 협조를 얻어 설문이 진행 되었다. 각 학교에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연구에 부적절한 설문지를 제외한 275부 (90.4%)를 통계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임상실습에 대한 견해와 임상실습 전·후 취업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총 문항 수는 33문항 또는 3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임의대로 작성한 후에 예비 조사를 통해서 수정, 보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기초 조사 5문항, 실습 기간에 관한 항목에서 3년 과정 학생의 경우 7문항, 4년 과정 학생의 경우 8문항, 임상실습 교육에 관한 13문항, 방사선사 취업에 관한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통계프로그램 SPSS(12.0 version)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각 문항은 단일 선택형으로 주어진 예시를 선택하는 문항과 리커트식 5점 척도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에 따라 빈도 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응답의 경향을 비교하였고, 교차분석에 따라 카이제곱 검정, McNemar 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

연구 대상자 학생은 275명으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53.1%(146명),

여자 46.9%(129명)이었고, 교육과정별 분포는 3년 과정은 69.8%(192명), 4년 과정은 30.2%(83명)이었다. 나이 분포는 21~25세는 80.7% (222명), 26~30세는 17.1%(47명), 31세 이상은 2.2%(6명)이었다.

방사선(학)과를 선택한 동기로는 ‘취업률이 높아서’에

Table 1 Analysis of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275)

구분	비율 (%)	빈도 (명)	
성 별	남 자	53.1	146
	여 자	46.9	129
교육과정	3년 과정	69.8	192
	4년 과정	30.2	83
나 이	21 ~ 25세	80.7	222
	26 ~ 30세	17.1	47
	31세 이상	2.2	6
방사선(학)과 선택동기	취업률이 높아서	44.0	121
	적성에 맞아서	4.0	11
	고교 성적을 고려	16.7	46
	부모 및 타인의 권유	16.7	46
	병원근무를 위해	10.5	29
	목표를 위한 관문	4.0	11
	방사선사의 좋은 인상	3.6	10
	무응답	0.4	1
방사선(학)과 만족도	만족한다	39.3	108
	보통이다	53.1	146
	불만족한다	6.9	19
	무응답	0.7	2

Table 2 The perception about clinical practices period Unit: %(Person), (N=275)

구분	빈도	구분	빈도		
현재 8주(영상의학과 6주, 핵의학과 1주, 방사선종양학과 1주)의 임상실습기간					
8주의 기간이 적당하다.	51.3 (141)				
8주의 기간이 길다. 실습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	13.1 (36)				
8주의 기간으로 부족하다. 실습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35.6 (98)				
구분	빈도	구분	빈도		
각 과별 적당한 임상실습기간					
영상의학과	4주	27.6 (76)	핵의학과	1주	53.8 (148)
	5주	5.8 (16)		2주	35.3 (97)
	6주	40.4 (111)		3주 이상	9.5 (26)
	7주	2.2 (6)		무응답	1.5 (4)
	8주	12.4 (34)	방사선종양학과	1주	54.5 (150)
	9주 이상	10.9 (30)		2주	34.2 (94)
	무응답	0.7 (2)		3주 이상	10.2 (28)
			무응답	1.1 (3)	

44.0%(121명)로 가장 높았고, ‘고교 성적을 고려해서’와 ‘부모 및 타인의 권유’라는 대답이 16.7%(46명)로 같은 숫자의 응답이 나타났다. 방사선(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 39.9%(108명), ‘보통이다’ 53.1%(146명), ‘불만족한다’ 6.9% (19명)로 나타났다(Table 1).

2. 실습기간에 대한 인식

현재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8주의 임상실습 기간에 대해서 51.3%(141명)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부족하다는 의견은 35.6%(96명), 기간이 길다 13.1%(36명)로 나타났다.

각 임상과별로 적당한 실습기간에 대해서는 영상의학과는 기존의 6주는 40.4%(111명)가 답하였고, 4주 27.6%(76명), 8주 12.4%(34명) 순으로 나타났다. 핵의학과는 기존의 1주는 53.8%(148명), 2주 35.3% 97명, 3주 이상 9.5%(26명)로 나타났다. 방사선종양학과는 기존의 1주가 54.5%(150명), 2주는 34.2%(94명), 3주 이상은 10.2%(28명)로 나타났다(Table 2).

3. 실습시기에 대한 인식

1) 3년 과정 학생의 실습시기

3년 과정 학생의 적당한 임상실습시기에 대해서 ‘2학년 겨울방학’에 47.3%(91명), ‘3학년 여름방학’에 21.3%(41명), ‘2학년 여름방학’에 11.5%(22명)순으로 나타났다.

심화실습 시행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59.3%(114명),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40.6%(79명)를 차지하였다. 심화실습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11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심화실습 기간에 대해서는 ‘4주’에 53.0%(60명), ‘6주 이상’은 27.8%(32명), ‘2주’는 7.0%(8명)으로 나타났다. 심화실습 시기에 관련해서는 ‘3학년 여름방학’에 40.3%(46명), ‘3학년 1학기’에 30.7%(35명), ‘2학년 겨울방학’은 16.7%(19명)로 나타났다(Table 3).

2) 4년 과정 학생의 실습시기

4년 과정 학생의 적당한 임상실습시기에 대해서 ‘3학년 1학기’에 27.7%(23명), ‘3학년 겨울방학’에 25.3%(21명), ‘3학년 여름방학’에 16.9%(14명), ‘4학년 1학기’에 14.5%(12명), ‘3학년 2학기’에 12%(10명)으로 나타났다.

심화실습 시행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57.8%(48명), ‘필요가 없다’는 42.2% (35명)로 나타났다. 적당한 심화실습 기간에 관련해서 ‘4주’에 58.3%(28명), ‘6주 이상’은 25.0%(12명), ‘2주’는 8.3%(4명)로 나타났다. 적당한 임상실습 시기에 대해서 ‘4학년 1학기’에 27.1%(13명), ‘4학년 여름방학’에 25.0%(12명), ‘3학년 겨울방학’에 18.8%(9명), ‘3학년 2학기’에 16.7%(8명), ‘3학년 여름방학’에 10.4%(5명)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3 The 3-year course student's perception about clinical practices period

Unit: %(Person),(N=192)

		빈도			빈도
적당한 임상실습시기	2학년 여름방학	11.5 (22)	심화실습 시행	필요하다	59.3 (114)
	2학년 2학기	10.4 (20)		필요가 없다	40.6 (78)
	2학년 겨울방학	47.3 (91)	적당한 심화실습기간 (N=114)	2주	7.0 (8)
	3학년 1학기	8.9 (17)		3주	6.1 (7)
	3학년 여름방학	21.3 (41)		4주	53.0 (60)
무응답	0.5 (1)	5주	6.1 (7)		
본인의 임상실습시기	2학년 여름방학	0.0 (0)	6주 이상	27.8 (32)	
	2학년 2학기	3.6 (7)	적당한 심화실습시기 (N=114)	2학년 겨울방학	16.7 (19)
	2학년 겨울방학	39.6 (76)		3학년 1학기	30.7 (35)
	3학년 1학기	4.2 (8)		3학년 여름방학	40.3 (46)
	3학년 여름방학	52.6 (101)		3학년 2학기	7.0 (8)
무응답				5.3 (6)	

4.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인식

임상실습 중 자신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에 대해 '전문지식'에 32.4%(89명), '해부병리지식'에 27.6%(76명), '실기능력'에 19.6%(54명), '의학용어'에 14.2%(39명)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운영에 대해서 75.6%(208명)가 병원에서 전담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임상실습 내용과 학교 수업내용과의 차이점에 관련해서는 '일부내용은 같으나 차이가 있다'가 68.4%(188명)로 나타났다(Table 5).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임상실습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에 대해 '보통이다'가 51.6%(142명), '그렇다'가 32.7%(90명)로 나타났다. '임상지도 방사선사의 임상실습 교육으로 이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에는 '그렇다'

가 46.9%(129명), '보통이다'가 29.1%(80명)를 차지하였다. '임상지도 방사선사의 임상실습교육으로 국가고시 대비에 도움이 되었다'에는 '그렇다'가 41.5%(114명), '보통이다'가 30.5%(84명)로 나타났다. '임상지도 방사선사가 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 자신의 실습에 도움이 되었다'에 대해 '그렇다'가 41.8%(115명), '보통이다'가 33.8%(93명)를 차지하였다. '임상지도 방사선사가 적극적으로 실습교육에 임하여 자신의 실습교육에 도움이 되었다'에 대해 '그렇다'가 39.6%(109명), '보통이다'가 34.9%(96명)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중 특강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에 대해 '그렇다'가 48.9%(134명), '보통이다'가 23.4%(64명)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중 실습학생의 학업고민과 고충 상

Table 4 The 4-year course student's perception about clinical practices period Unit: %(Person), (N=83)

		빈도			빈도	
적당한 임상실습시기	3학년 1학기	27.7 (23)	현재 4주의 심화실습 기간	적당하다	52.1 (25)	
	3학년 여름방학	16.9 (14)		기간이 길다	14.6 (7)	
	3학년 2학기	12.0 (10)		기간이 부족하다	31.3 (15)	
	3학년 겨울방학	25.3 (21)		무응답	2.1 (1)	
	4학년 1학기	14.5 (12)		적당한 심화실습기간 (N=48)	2주	8.3 (4)
	4학년 여름방학	1.2 (1)			3주	2.1 (1)
	무응답	2.4 (2)			4주	58.3 (28)
		5주	4.2 (2)			
본인의 임상실습시기	3학년 1학기	0.0 (0)	적당한 심화실습시기 (N=48)	6주 이상	25.0 (12)	
	3학년 여름방학	4.8 (4)		무응답	2.1 (1)	
	3학년 2학기	0.0 (0)		3학년 여름방학	10.4 (5)	
	3학년 겨울방학	39.8 (33)		3학년 2학기	16.7 (8)	
	4학년 1학기	53.0 (44)		3학년 겨울방학	18.8 (9)	
	4학년 여름방학	0.0 (0)		4학년 1학기	27.1 (13)	
심화실습 시행	필요하다	57.8 (48)	4학년 여름방학	25.0 (12)		
	필요가 없다	42.2 (35)	무응답	2.1 (1)		

Table 5 The perception about clinical practices education(I) Unit: %(Person), (N=275)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임상실습 중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			
해부병리지식	27,6 (76)	실기 능력	19,6 (54)
전문 지식	32,4 (89)	의학용어 또는 전문용어	14,2 (39)
기 타	0,4 (1)	무응답	5,8 (16)
임상실습 운영의 전담			
병 원	75,6 (208)	학 교	19,6 (54)
무응답	4,7 (13)		
임상실습 내용과 학교수업 내용과의 차이점			
차이가 많다.	16,0 (44)	일부 내용은 같으나 차이가 있다.	68,4 (188)
큰 차이가 없다.	14,9 (41)	무응답	0,7 (2)

Table 6 The perception about clinical practices education(II)

Unit: %(Person)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SD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임상실습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N=275)	3.6 (10)	9.5 (26)	51.6 (142)	32.7 (90)	2.5 (7)	3.21±0.79
임상지도 방사선사의 임상실습교육으로 이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N=275)	0.7 (2)	6.2 (17)	29.1 (80)	46.9 (129)	17.1 (47)	3.73±0.84
임상지도 방사선사의 임상실습교육으로 국가고시를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N=275)	1.8 (5)	10.5 (29)	30.5 (84)	41.5 (114)	15.6 (43)	3.59±0.94
임상지도 방사선사가 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실습에 도움이 되었다.(N=275)	2.9 (8)	7.6 (21)	33.8 (93)	41.8 (115)	13.8 (38)	3.56±0.92
임상지도 방사선사가 적극적으로 실습교육에 임하여 실습교육에 도움이 되었다.(N=275)	5.8 (16)	8.0 (22)	34.9 (96)	39.6 (109)	11.6 (32)	3.43±0.99
특강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N=274)	0.0 (0)	5.1 (14)	23.4 (64)	48.9 (134)	22.6 (62)	3.89±0.81
실습 학생의 학업고민과 고충 상담하는 것도 필요하다.(N=275)	0.7 (2)	8.4 (23)	27.6 (76)	42.2 (116)	21.1 (58)	3.75±0.91
임상지도 방사선사가 자신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였다.(N=275)	0.7 (2)	8.0 (22)	32.4 (89)	40.4 (111)	18.5 (51)	3.68±0.89
임상실습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다.(N=269)	1.5 (4)	3.7 (10)	22.3 (60)	43.9 (118)	28.6 (77)	3.94±0.89
졸업 후 역할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N=269)	2.6 (7)	3.7 (10)	29.4 (79)	47.2 (127)	17.1 (46)	3.72±0.88

Table 7 The perception of getting job related to the radiation(I)

Unit: %(Person), (N=258)

항 목	실습 후 방사선사 취업 희망 유·무			전 체		
	희망한다	희망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실습 전 방사선사 취업 희망유무	희망한다	77.5 (200)	0.8 (2)	5.8 (15)	84.1 (217)	p-value (.000) McNemar (.350)
	희망하지 않는다	1.9 (5)	1.6 (4)	1.2 (3)	4.7 (12)	
	모르겠다	3.5 (9)	1.9 (5)	5.8 (15)	11.2 (29)	
전 체		82.9 (214)	4.3 (11)	12.8 (33)	100.0 (258)	

답하는 것도 필요하다'에 대해 '그렇다'가 42.2%(116명), '보통이다'가 27.6%(76명)를 차지하였다. '임상지도 방사선사가 실습교육 중 자신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였다'에 대해 '그렇다'가 40.4%(111명), '보통이다'가 32.4%(89명)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다'에 대해 '그렇다'가 43.9%(118명), '매우 그렇다'가 28.6%(77명)로 나타났다. '졸업 후 역할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에 대해 '그렇다'가 47.2%(127명), '보통이다'가 29.4%(79명)를 차지하였다(Table 6).

5. 방사선사 취업에 대한 인식

1) 임상실습 전·후 방사선사 취업 희망유무

임상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방사선사 취업에 대해서 '희망한다'가 84.1%(217명), '희망하지 않는다'가 4.7%(12명), '모르겠다'가 11.2%(29명)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을 실시한 후에 방사선사 취업에 대해서 '희망한다'는 82.9%(214명), '희망하지 않는다'가 4.3%(11명), '모르겠다'가 12.8%(33명)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전·후 방사선사 취업 희망의 변화를 비교하였을 때, 임상실습 전에 방사선사 취업을 희망하지 않았던

12명의 학생 중 5명이 희망하게 되었고, 모르겠다고 응답한 29명의 학생 중 9명이 희망하게 되었다. McNemar검정을 통해서 실습 전·후 방사선사 취업 희망 유·무 변화가 통계학적으로 임상실습과의 관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2) 방사선사 취업 희망에 대한 인식

임상실습 전 방사선사 취업을 희망한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을 희망하였던 의료기관에 대해서 ‘상급종합병원’이 58.5%(117명), ‘종합병원’이 35.0%(70명)로 나타났다. 방사선사 취업을 원한 이유에 대해서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43.0%(97명), ‘적성에 맞아서’가 16.7%(33명)를 차지하였다. 방사선사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적성 및 소질에 맞지 않아서’가 37.0%(10명), ‘근무 및

고용체계의 불만족’이 25.9%(7명)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후에 방사선사 취업을 희망한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을 희망하였던 의료기관에 대해서 ‘상급종합병원’이 54.5%(109명), ‘종합병원’이 35.5%(71명)로 나타났다. 방사선사 취업을 원한 이유에 대해서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46.0%(91명), ‘적성에 맞아서’가 24.7%(49명)로 나타났다. 방사선사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적성 및 소질에 맞지 않아서’가 40.7%(11명), ‘근무 및 고용체계의 불만족 때문’에 22.2%(6명)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통계학적 검증을 통해서 변수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만, McNemar검정을 통해서 실습 전·후 방사선사 취업 희망유무 변화가 통계학적으로 임상실습과의 관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Table 8 The perception of getting job related to the radiation(II) Unit: %(Person)

구 분	빈 도		
	실습 전	실습 후	
취업 희망 의료기관	(N=200)		
상급종합병원	58.5 (117)	54.5 (109)	p-value (.000)
종합병원	35.0 (70)	35.5 (71)	
병 원	3.5 (7)	6.0 (12)	McNemar (.429)
의 원	0.5 (1)	0.5 (1)	
기 타	2.5 (5)	3.5 (7)	
방사선사 취업을 원하는 이유	(N=198)		
적성에 맞아서	16.7 (33)	24.7 (49)	p-value (.000)
분야의 독특성 때문에	15.2 (30)	12.6 (25)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49.0 (97)	46.0 (91)	McNemar (.086)
봉사직을 갖기 위해	3.0 (6)	2.0 (4)	
학구적 직업이기 때문에	4.5 (9)	3.0 (6)	
성적을 고려해서	6.6 (13)	8.1 (16)	
타의에 의해서	2.0 (4)	0.5 (1)	
취업가능한 분야를 몰라서	1.5 (3)	1.5 (3)	
기 타	1.5 (3)	1.5 (3)	
방사선사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	(N=27)		
적성 및 소질에 맞지 않아서	37.0 (10)	40.7 (11)	p-value (.000)
전공과목이 어려워서	22.2 (6)	11.1 (3)	
방사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0.0 (0)	3.7 (1)	McNemar (-)
근무, 고용체계의 불만족	25.9 (7)	22.2 (6)	
비전공 분야 편입학, 유학	3.7 (1)	3.7 (1)	
취업 가능한 분야를 몰라서	3.7 (1)	11.1 (3)	
기 타	7.4 (2)	7.4 (2)	

IV. 고찰

임상실습은 이론적 지식과 이해를 실제 임상에서 적용하기 위한 과정으로 1993년부터 임상실습이 정규 과목으로 편성되었다. 임상실습을 통해서 학생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러나 면허를 소지해야하는 특수성 때문에 직접 참여에 한계가 있어 임상실습이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치우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자칫 대학에서 받은 교육과 임상실습 현장에서의 이론적 차이로 인해 학생들로 하여금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임상실습 현장의 현재 모습을 파악함은 물론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임상실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임상실습에 있어서 실습교육의 수요자 입장에서의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관한 견해 그리고 임상실습 전·후 방사선사 취업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방사선(학)과 선택에 있어서 '취업률이 높아서'라는 응답이 44%로 나타났는데, 김학성⁵⁾ 연구에서의 결과와 고성진⁷⁾ 연구에서의 결과와 같이 취업이 학과선택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나타났다.

임상실습 기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8주의 임상실습기간에 대해 만족 (51.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과별 임상실습기간에 대해서도 영상의학과 6주(40.4%), 핵의학과 1주(53.8%), 방사선종양학과 1주(54.5%)로 적당하다고 나타났다. 1993년 임상실습이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된 이후 의료기술의 발달로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와 검사영역이 넓혀져 왔고 앞으로 더욱 더 넓혀질 것이다. 반면에 이미 오래전부터 유지되고 있는 8주의 임상실습 기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하다면 개선되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3년 과정 학생의 임상실습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 2학년 겨울방학(47.3%)이 적당하다고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이준일⁹⁾의 보고와 일치하는 것으로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데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로 사료된다. 그리고 심화실습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심화실습이 필요(59.3%)하고, 4주(53.0%)의 기간으로 3학년 여름방학(40.3%)이 적당하다고 대답하였다. 4년 과정 학생의 임상실습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 3학년 1학기(27.7%), 3학년 겨울방학(25.3%)이 적당하다는 대답이 근소한 차이를 가지고 나타났다. 현재 3학년 겨울방학과 4학년 1학기에 시행하는 4년 과정 학생의 임상실습 시

기와 많은 이견을 가지는 것으로 기존의 학제에 구애받지 말고 교육대상자인 학생들에게 최상의 임상실습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실습의 적당한 시기에 대해 폭넓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심화실습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심화실습이 필요(57.8%)하고, 현재 4주의 기간(58.3%)으로 4학년 1학기(27.1%) 또는 4학년 여름방학(25.0%)이 적당하다고 대답하였다.

임상실습 교육에 대해 학생들은 임상실습 중 전문지식(32.4%)이 가장 부족하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임상실습 내용과 학교수업 내용에 대해서 일부 내용은 같으나 차이가 있다(68.4%)라고 대답하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함께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역이 넓혀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교육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실습만으로 교육의 한계가 있으므로 기초를 배우고 기본을 다지는 교육과 더불어 전문지식을 학습할 기회를 다양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임상실습의 운영을 병원에서 맡아서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부분 5점 척도에 평균 3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임상실습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다'가 평균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학성⁴⁾의 연구 결과에서도 '임상실습에 대하여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낀다'가 평균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향숙⁴⁾의 연구결과에서도 '임상실습 후 임상실습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다'가 평균 4.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함께 임상실습을 통해 졸업 후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임상실습 교육에 있어서 특강을 통한 교육과 더불어 앞으로 방사선사의 길을 가고자 하는 후배를 위해서 이미 방사선사의 길을 가고 있는 선배의 입장에서 학업 및 다양한 고민, 고충을 상담해 주는 것도 임상실습의 의미 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나타났다. 반면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임상실습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가 평균 3.21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실습교육의 수요자로서 임상실습을 통해 실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면에 교육의 공급자인 병원에서는 임상실습 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에 대해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임상실습 전에 방사선사로 취업을 희망한 학생은 84.1%로 나타났고, 임상실습 후에는 82.9%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전에 방사선사 취업을 희망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직업의 안정성 때문이라는 대답이 49.0%를 차지하였

으며, 임상실습 후에도 역시 46.0%의 다수가 직업의 안정성을 선택했다. 적성에 맞아서 희망한다는 대답은 임상실습 전 16.7%에서 임상실습 후 24.7%로 소폭 상승하여 나타났다. 반면에 방사선사 취업을 희망하지 않았던 이유를 살펴보면 적성 및 소질에 맞지 않아서 희망하지 않았다는 대답이 임상실습 전 37.0%, 임상실습 후 40.7%로 다수가 선택하였고, 소폭 상승하여 나타났다. 전공과목이 어려워져서 희망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22.2%에서 11.1%로 감소하여 나타났다. 근무, 고용체계의 불만족이라는 대답은 임상실습 전 25.9%, 임상실습 후에는 22.2%로 두 번째로 많은 대답을 하였다. 임상실습 전에는 학생의 위치에서 적성과 소질 그리고 전공과목의 어려움이 방사선사 취업희망여부의 영향을 미쳤지만, 임상실습 후에는 적성과 소질 그리고 근무 및 고용체계의 불만족이 방사선사 취업희망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임상실습을 통해서 현실적인 상황을 인지하여 이를 통해 취업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설문 조사 대상자는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방사선(학)과 학생 중 임상실습을 다녀온 학생 일부로 국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방사선(학)과 학생들의 견해라고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내용은 이전에 시행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임상실습에 관한 표준화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임상실습과 이견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을 알아보는 연구와 함께 개선을 위한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단순한 취업 과정의 대학교육이 아니라 방사선(학)과의 발전과 유능한 인재를 통한 방사선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내실 있고, 만족도 높은 대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임상실습 시기와 실습기간에 대해서 기존의 학제에만 구애받지 말고 교육대상자인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와 기간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임상실습의 교육내용과 학교의 교육내용의 통일성을 가지고, 또한 임상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병원에서 같은 수준의 임상실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지침서를 제작하고 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임상실습 방사선

사 인증과 관련해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다섯째, 임상실습의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만족도 비교와 견해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임상실습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지속적인 연구와 더불어 임상지도강사와 대학과의 발전적인 논의와 함께 임상실습 교육현장의 변화가 필요하다.

V. 결 론

본 연구는 교육의 수용자 입장에 있는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관한 견해, 방사선사 취업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고자 한다.

방사선(학)과의 선택 동기는 높은 취업률 때문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이 반영된 대답이 44%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8주의 임상실습 기간이 적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임상실습 교육에 대해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임상실습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전·후로 방사선사 취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84.1%에서 82.9%로 나타났다. 방사선사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직업의 안정성 때문이고, 취업을 원하지 않은 이유는 적성 및 소질에 맞지 않아서라고 대답하였다.

임상실습은 임상에서 시행되는 검사를 바탕으로 체험적 학습의 효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상 상황을 통해 대학교육을 통해 배울 수 없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임상실습의 경험이 진로 선택과 취업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본 연구가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임상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Shinkwan Ko, Hongryang Jeong, Hanjun Yang, et al.: Introduction of Radiologic Science, Komoonsa, 33-35, 2002
2. Sunggyu Shin, Inchul Im: Satisfaction Level of Clinical Practice and Related Variables for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Radiology,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10(9), 276-284, 2010
3. Hwankyung Sung, Kyusun Lee, Jaesun Hwang:

- A Study on Correlation of Teaching Efficiency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of Dental Technology Students (in Seoul and Kyung-ki), *Journal of Korea Academy of Dental Technology*, 29(1), 59-72, 2007
4. Hyangsook Lee, Jongsu Noh, Jungjin Cha, et al.: The Change of Awareness of Decision on Employment through the Fieldwork for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8(1), 107-121, 2010
 5. Harksung Kim: A Study on the Satisfaction degree for Clinical Practice of Radiotechnology Students,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27(4), 75-83, 2004
 6. Jinkyung Kim, Soyoon Park, Teakyoun Lee, Daehyuk Kang: The Perception of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on the Clinical Fieldwork,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2(1), 69-82, 2004
 7. Seongjin Ko, Sesik Kang, Changsoo Kim, Seokyeon Choi, Junghoon Kim: Study on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by Students in Department of Radiologic Science,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34(4), 287-296, 2011
 8. Junghoon Kim, Sesik Kang, Changsoo Kim: A Study on Stress Factors Radiology Students Experience During Outdoor Clinical Training,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36(3), 201-208, 2013
 9. Joonil Lee, Chongsam Park: A Study on Clinical Practice of Radiologic Technology Department, Daegu Health College, 91-106, 2000
 10. Sookyung Na: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Clinical Training Students Toward the Medical Service of Radiotechnologists,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21(2), 64-68, 1998
 11. Beonggyu Yoo, Hanjoon Yang, Youngsoon Park: A Study on Clinical Demonstration Assessment for the Radiotechnological Students of College in Korea,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22(1), 79-85, 1999
 12. Chongsam Park, Joonil Lee: The Opinion of Students about Clinical Demonstration in Dept. of Radiotechnology, *Journal of 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28(1), 23-33, 2002
 13. Jinsook Choi: Comparison of Perceptions about Teaching Practices by Student Teachers Before and After Practice Teaching, *Journal of The Korean Child Studies*, 26(4), 113-123, 2005
 14. Kwangyeol Lyu, Hyunsoo Kim: Satisfaction and Improvement of Clinical Experiment of Student Radiotechnologists,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29(4), 303-310, 2006
 15. Changmoo Baek, Sooin Chae, Jeongkoo Kim: Characteristic of Stress According to Student Clinical Training in Department of Radiology, *Journal of 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6(4), 291-298, 2012
 16. Hyunjin Kim: A Comparative Study of Teachers', Pre-service Teachers' and Students' perceptions on Pre-service teachers' English Classes in Korean Middle Schools, Master's Degr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2008
 17. Kyeongyop Kim: Differences between Professor and Students in Perception about 'Good Class', Master's Degre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egu, 2010

• Abstract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Students in the Radiologic Technology Study on the Clinical Practices

Byung-Ryul Lee · Hyun-Gil Kim · Myeong-kwan Yoon · Gi-Jong Lee ·
Sang-Young Cha · Cheong-Hwan Lim¹⁾

Dept. of Diagnostic Radiology, Inha University Hospital ·¹⁾Dept. of Radiological Science, Hanseo University

The clinical practices provide the students with a good opportunity to study the practical experiences in their field through the clinical training education in hospital. Now, in this study, comparing the perceptions of the clinic teachers with those of students at the clinical site.

The study was conducted to the students attending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and who finished the clinical practices in 2013.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 student and collected from them. The study were conducted to 275 questionnaires with frequency analysis, crosstabs, chi-square test and McNemar test.

The major motivation was of the select radiography course was high employment rate(44.0%) and the satisfaction of radiography course was general(53.1%). 51.3% of the study answered 8 weeks current duration of clinical practices is proper. The 3-year course students answered that the period of clinical practices would be proper if it is performed in the winter vacation in their second year in college(47.3%). The 4-year course students answered that the first semester in their third years is proper for clinical practices(27.7%). The students answered that they felt the lack in their knowledge on the professional field(32.4%) during the clinical practices and some of the practical training is different from the education performed at school(68.4%). Most of answered that they were satisfied with the clinical practices and among them the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 clinical practices (3.94 ± 0.89). After the clinical practices, their desire for getting job as a radiography has changed from 84.1% to 82.9%. The reason why they want the job related to the radiation is because the job is stable (changed from 49.0% to 46.0% after the clinical practice) while the reason why they don't want be a radiographer because that job is not proper for them (changed from 37.0% to 40.7% after the clinical practice)

The effort should be made to enhance the position of radiation professionals through the improved education system to the students, rather giving them education for just employment.

Key Words : Clinical Practices, Radiography course, Job perception